

오피니언 리더



정 성 천
(주)한국영재교육발전재단 연구소
광신교회집사

▶무서움

영화의 어떤 장면은 숨털이 주뻗 일어설 정도로 공포감을 준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무서움을 주는 대상들을 다 제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무서움의 대상이 또다시 등장하는 장면은 공포심을 유발한다. 이런 무서움보다 훨씬 큰 무서움은, 우리들이 AI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 애를 써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장해서, AI포클레인 옆에서 살 줄고 보조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공부를 안 해서 AI를 보조한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할

한 올바른 공부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학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사회 지도층, 위장자,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학부모 등 어른 모두가 반드시 찾고 알아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제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서움에 종속될 것이다.

▶무서움의 탈출2

고조선의 시조 단군은 분명 엄청난 능력자였을 것이다. 왕검은 그 시대에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약탈하는 등, 힘센 자가 판을 치는 현실이 안타까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며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을까 한다. 자신의 능력을 “내가 왕이 되어 군림 하겠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에 나타냈다. 능력자로부터 나온 ‘홍익인간’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정말 기본에 충실한 진정한 능력이다. 세종은 왕 중에서도 ‘대왕’으로 추앙받는 뛰어난 능력자다. 왕이 신하와 백성위에 군림하던 시기에 글을 몰라 당하기만 하는 백성들이 안타까워 직접 글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능력을 실행으로 옮겼다. 능력자 대왕의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한글이 지금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얼마나 멋지고 진정한 능력 있는 능력인가?

세상에서 눈을 가장 잘 치료하는 능력을 지닌 안과 의사가 눈이 아픈 사람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다 발휘한다고 해도 절

공부 그 갈림길

수도 있었지만, 시키는 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살 줄고 AI를 보조한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AI시대에 돌입한 지금, 과거의 방식 그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에는 AI의 보조자가 된다면, 이 결과는 공포 그 자체일 것이다. 온몸을 떨게 하는 큰 무서움일 뿐만 아니라, 분하고 억울한 감정을 시도 때도 없이 끌어내는 무서움이 될 것이다.

▶무서움의 탈출1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안 풀어진 유형이다”는 말을 “나는 풀어진 문제만 풀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며,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지금, 이런 인식 때문에 문제 풀이 기체가 되어있다. 이제 많은 문제를 풀고 무작정 지식을 담은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 AI시대에 맞는 올바른 공부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처음 본 유형일지라도 생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생긴다. 이 힘이 생겨야, 무서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AI시대에 가장 올바른 공부 방법은 기본에 충실함이다. 다양한 지식과 어려운 지식은 AI가 담당하고, 사람은 지금보다 몇 곱절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한다. 기본으로부터 창의적 사고가 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이어야 한다. 기본에 충실

대로 능력은 줄어들지 않는다.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능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나누어주어도 줄거나 없어지지 않고, 주변에 평화와 풍요를 제공한다. ‘공부’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어른들이 어린 자녀와 학생들에게 전해줘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AI시대의 무서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에겐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이제는 찾고 안내해야 할 때

인류는 선사시대, 역사시대, 대항해시대, 상업시대, 산업시대, 지식시대를 지나 지금은 AI시대에 들어섰다. 사람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알로그에서 디지털에 의존한 시대가 되었다. AI의 생명인 디지털은 0과 1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한다. 0과 1의 단순함이 AI를 만드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올바른 공부 방법과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가치관이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이끌 것이다. 지금, 어른으로 서 있는 모두는 다음 세대에겐 기본에 충실한 올바른 공부 방법을 찾아주고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생명이 0과 1처럼 기본적인 DNA 인자의 조합과 능력자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성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설탕 종류에서 비정제당이 더 건강하다고 하지만, 많이 먹으면 해롭다

설탕에는 정제당과 비(非)정제당 두 종류가 있고, 정제당에는 백설탕(정백당), 갈색설탕, 흑설탕이 있다. 전체적인 설탕 제조과정에서, 정제당은 1차 정제과정을 거친 원당을 원료로 2차 정제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에 반해, 비정제당은 천연원당, 원당(원료당), 함밀당, 흑당(black sugar)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탕수수 등으로부터 당밀을 제거하는 1차 정제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다(단, 사탕무에는 당밀이 없다). 물론 천연원당은 아예 1차 정제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사탕수수 즙을 채취한 모액에서 바로 얻어지기 때문에 비정제당이다.

1차 정제과정을 거치면서 당밀을 제거하여 만들어진 원당(原糖, raw sugar)은 거무스름한 색깔을 띠기에 흑당이라 부른다. 흑당이란 용어가 색깔의 관점에서 정의되었지만, 당밀을 함유한 오리지널 천연원당이 본래 의미의 진짜 원조 흑당이고, 영양적으로도 좋다. 흑당(黑糖)을 영어로 black sugar라 하는데, 이는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일본 오키나와 흑당이 많이 알려졌기에, 여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영어 표기로 인해, 비정제당인 흑당(black sugar)과 정제당인 흑설탕(dark brown sugar)을 많이 혼동한다. 그렇기에 비정제당인 흑당은 원산지, 제조법, 정제 정도에 따라 사탕수수당(cane sugar), 오키나와 흑당, 무스코바도(Muscobado; 정제되지 않은 설탕이란 뜻의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함), 그리고 부분 정제당인 터비나도(Turbinado), 데메라라(Demerara) 등으로 구분하여, 흑설탕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명한다.

건강에 유의하는 소비자일수록 백설탕같은 정제당보다 건강에 좋은 설탕으로 원당 또는 흑당을 찾는다. 상당히 비싸더라도 품위가 있고 질 좋은 흑당을 구매하기 원한다. 위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에 좋은 비정제당인 흑당의 경우, 대부분 그 영양성분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할 수 있다. 칼슘이나 철 같은 미네랄 함량, 비타민과 기타 영양소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꼼

꼼히 확인하여 영양적으로 좋은 흑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하는 천연원당 같은 비정제당이라 하더라도, 주성분은 설탕이기에 과량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탕수수나 사탕무가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1차 정제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비정제당인 원당을 정량 수입하여, 국내 제당회사에서 2차 정제의 공정을 거쳐 정제당을 만든다 [수입 원당 => 백설탕 => 갈색(황)설탕 => 흑설탕]. 정제당은 아래와 같이 3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색상과 당도가 다르다.

* 백설탕(정백당): 당액 또는 원당을 가공한 백색의 설탕이다(설탕성분 >99%).

* 갈색(황)설탕(brown sugar): 백설탕을 가열하여 일부 카라멜화 과정으로 갈변된 것이다(설탕성분 97%).

* 흑설탕(dark brown sugar): 2차 정제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얻어지는 정제당이다. 갈색설탕에 풍미를 높이기 위해 당밀이나 흑당 또는 카라멜 색소를 첨가하여 만들기에 독특한 향과 맛이 있다(설탕성분 86-92%).



이원재 교수

- 서울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 및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92



장찬익 선교사
국제기독교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교의 몰락과

인간에 있는 한 선교회는 매주 가까운 곳에 있는 무스크에 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전도지와 성경책을 주면 무슬림들은 받고 모스크로 들어가는 데 파키스탄에서 온 무함마드는 선교팀에게 다가와 오히려 “예수는 선지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이슬람의 교리를 말합니다. 그

런면 선교팀도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 선교팀이 전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무함마드는 전도지와 성경책을 반납하고 그냥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허전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생각은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루 종

• 무슬림의 주장: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각 나라와 민족에 따라 서로 다름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절대자 창조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알라입니다. 그 근거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세계3대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 질문 2: 예수는 하나님인가 선지자인가?

• 무슬림의 주장: 당신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예수의 사명은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과 다음에 오는 마지막 선지자는 무함마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불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에게 질문하는 7가지 질문-1

일 고민하게 됩니다.

무슬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이슬람교의 몰락과를 찾고 있는 선교팀에 대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교리에 의해 기독교를 공격하는 질문 7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슬람교의 몰락과를 찾는 선교팀에게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질문 1: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가?

나온 같은 하나의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알라를 믿어도 괜찮습니다.

• 기독교의 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쿠란과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쿠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자르이고(쿠란6:74)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창11:29) 그러므로 하나님도 서로 다른 하나님입니다.

을 받아서 권능이 생긴 것이 본래는 선지자이고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나요? 있으면 보여 주세요?

• 기독교의 주장: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8:58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있는 나(Before Abraham was even born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e.or.kr>



한현우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
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목사
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
학은 창교도 개혁 신학의 요

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를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
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
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목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서약)	신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권리는 본교인 서울 남한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 원서접수: 수시접수 (062-266-0153)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http://gscce.or.kr>)
- ▶ 주야간반: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말반: 매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성특혜
- ▶ 최고의 교수진 / 실용전공 / 실용목회자 양성
- ▶ 교회개혁, 설립인력,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종교 기금 교단

총회신학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